

종교개혁의 예배와 신학

이오갑

(조교수, 조직신학)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다. 즉 예배를 위해 모인 회중들과 다름이 아니다. 그만큼 예배는 교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예배개혁과 맥을 같이 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종교개혁은 그 초창기부터 예배의 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것은 면죄부를 매개로 한 신학문제, 특히 구원론으로부터 비롯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는, 쯔빙글리 등의 독일어권 스위스와 프랑스, 그리고 파렐이나 칼빈 중심의 불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¹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또한 신학논쟁들과 파문 등 일련의 사건에 뒤이어 예배의 개혁으로 발전되었다. 그런 점에서 예배개혁과 함께 출발한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도 광범

¹ 쯔빙글리의 쥐리히 종교개혁은 그 출발부터 미사의 폐지와 성상타파, 금식이나 각종 교회규정들의 철폐 혹은 재인식 등 예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J. P. Pollet, Huldrych Zwingli et le zwinglianisme, Paris, J. Vrin, 1988, p. 253-262 등. 프랑스와 불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 역시 – 모(Meaux)의 르페브르 대파를 중심의 인문주의적 그룹을 제외한 칼빈이나 파렐 등 복음주의적 그룹들의 활동은 곧 복음의 설교와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J.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의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5년, p. 51-63, 88-103 등.

위하게 새로운 예배들을 성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배개혁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종교개혁의 예배, 그 근본적인 동기와 신학, 내용, 형식, 그리고 예배개혁의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제를 다름에 있어서, 이 연구는 개신교의 주요한 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쪼빙글리나 재세례파, 영국교회 등 여러 전통들을 가능한 함께 고려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예배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우려하는 여러 지적들이 많다. 실제로, 개신교 예배에서 형식주의나 윤법주의, 아니면 주관적 감정주의 같은 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도 예배를 개혁하고, 개신해야 할 과제를 갖는다. 그런 현대교회의 예배개혁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적 관점과 복음전통에 입각한 종교개혁 예배의 발견은 오늘의 예배를 반성해보고, 개혁의 방향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1.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부정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이었다. 예배의 문제만을 볼 때도, 종교개혁의 예배는 곧 로마교회의 미사를 개혁한 것이었다. 종교개혁들은 모두 미사를 개혁하거나 폐지하면서 예배를 세워나갔다. 그런 결과, 나중에 개신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공통적으로 미사를 개혁했던 것은 당시 미사의 오류와 폐단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외없이 로마교회의 미사를 반 성경적이고, 신성모독적이며,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루터는 슈말칼트 신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황권에서 행해지는 미사는 가장 최대의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기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미사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고안품들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되지 않았다… 미사는 불필요하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위험도 따르지 않는다. …미사는 인간행위, 심지어는

사악한 행위요, 그밖의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²

그런 관점은 칼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교황권의 미사를 다루는 장의 제목을 이렇게 내걸었다.

“교황의 미사에 관하여, 그것은 신성모독으로서 그것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이 더럽혀졌을뿐만 아니라 철폐되었다(*De la messe papale, qui est un sacrilège par lequel la cène de Jésus-Christ non seulement a été profané et mais entièrement abolie*).”³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를 왜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했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이유였으나, 루터와 칼빈이 설명하는 내용이나 초점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종교개혁이 미사를 비판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사를 둘러싼 잘못된 관행들 때문이었다. 그 중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미사의 매매행위였다. 즉 카톨릭교회는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돈을 받고 미사를 집전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사적인 미사에 관계된 관행였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관례와 그 폐해를 규탄했다.

“미사를 사고 파는 것을 통해 해아릴 수 없이 많고 말할 수 없는 폐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설사 그것이 실제로 그 자체로 어떤 이유에서 보다 우선 이런 폐해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사를 없애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⁴

칼빈 역시 미사의 매매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비판했다.

² Die Schmalkaldschen (1537), 지원용 외 편역, [루터選集] (이하 [選集]) 서울, 커콜디아사, 1991, 8권, p. 400-401.

³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59/1560, IV 18. (이하 Institution).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를 그만 두지 않으려고, 회생제사가 또한 모든 교회를 위한 공동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 또는 차라리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회생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힌다. 그리고 그들은 회생제사를 유다의 수입 만큼 높은 값으로 팔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시로써 자기들의 선배의 예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액수의 유사성을 고집하고 지켜나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삼십에 팔았다. 그와같이 그들은 그것을 구리 삼십 드니에(denier, 프랑스의 옛 돈)에 팔고 있다. 그러나 유다는 한 번 팔았는데, 그들은 구매자가 생길 때마다 매번 판다.”⁵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미사를 부정했던 이유는, 미사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제정한 형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있다는 데 있었다. 즉 미사가 인간들의 고안과 솔수들로써 더럽혀졌다는 것이다. 루터가 보았던 바, 로마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해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고안하여 지금의 모습에까지 이르고”⁶ 있다. 또한 칼빈도,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일이 “과거 수세기에 걸쳐서 행해져 왔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죄조물의 주권이 창조주의 그것보다도 큰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⁷고 했다. 칼빈은 그렇게 잘못된 예배는 단지 “잡동사니”이고, “남용”이며, “사기술들”일뿐이라고 혹평한다.

⁴ Die Schmalkaldischen Artikel(1537), [選集] 8, p. 401-402. 루터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슬프게도 요즈음 여러분 동안에는 이 미사가 현세적인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먼저 잘 알기 전에는 사제나 수사가 되기 보다 오히려 목자가 되든지 또는 다른 어떤 직업을 구하라고 나는 충고하고 싶다.”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1520), [選集] 9, p. 203.

⁵ Institution IV, 18/14.

⁶ Eyn Sermon von dem Newen Testament, das ist von der heyligen Mess (1520), [選集] 7, p. 90.

⁷ Institution IV, 10/24.

“그래서 오늘날,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화려한 의식들을 거행하며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올바른 규정을 깊이 숙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유익도 없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과, 또한 사람들을 완전히 오류 가운데로 빠뜨리기 위해서 눈을 현란하게 하는 남용이자 사기술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⁸

루터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감각을 통해 감지되는 모든 것들 - 의복, 종(bell), 친송, 장식, 기도, 성체거양, 부복 및 기타 미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⁹인데, 그것은 쪼빙글리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오류들이었고, 개혁의 대상이었다. 가령 쪼빙글리 개혁의 초기인 1차 씨리히논쟁에서 제시된 [67개조 논제](1523)에서 성자승배, 조상(statues)이나 초상같은 것들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성전에서 차례로 제거되었다.¹⁰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미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외형적이고,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즉 그런 가시적 현상들 배후에 있는 신학적인 이유, 또는 근거였다. 루터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혁생제사 즉 미사의 행위가 이 생에 있어서 그리고 저기 영옥에 있어서 인간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人们들은 미사에 위하여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은총과 죄의 용서를 획득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로를 쌓고자 하기 때문이다. 미사가 잘 지켜질 때는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잘 지켜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사는 정죄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는 사람은 미사의 집전자와 또한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⁸ Institution IV, 10/12.

⁹ Eyn Sermon von dem Newen Testament, dqs ist von der heyligen Mess (1520). [選集] 7, p. 92.

¹⁰ U. G bler, Huldrzch Zwingli, 박종숙 역 [쪼빙글리] 서울, 아가페, 1993, p. 84, 86.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조항과 정면으로 상치되기 때문이다.”¹¹

즉 인용에서 보듯이, 미사는 사제가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생을 살고 있는 혹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신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공적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들의 사죄와 구원을 위해 언제나 다시 미사를 드려야 하는 끊임없는 과정속에 있게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더나가서는 필요없는 것으로까지 만드는 심각한 오류였다. 그 결과 카톨릭의 미사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진리를 위태롭게하고, 위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바로 그 이유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고, 또한 분명하게 미사를 배격했던 것이다. 그 점에 관해 칼빈의 소리를 들어본다.

“그런 고안들들과 그 비슷한 것들로써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오염시키고 체순시키고 모호하게 만들고자, 그 성만찬에다 그 암흑들을 펴뜨리고 뒤섞어놓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사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회생이고 제물이라고 믿게 되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사제에게 있어서나, 그 봉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모두 공격의 해위이다. 또는 그것은 인자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한 만족의 희생제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매우 명료하게 증거해볼 때, 미사는, 그것이 아무리 장식되고 요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의 십자가를 공격하고 매장시키며, 그의 죽음을 망각하게 만들며, 그로 부터 우리에게 오는 열매들을 빼앗아가며, 성례전을 파괴하고 없애버린다.”¹²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카톨릭교회의 미사를 부정했던 것은 실천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그들이 사적 미사를 거행하면서 미사를 매매하는 관행이나, 미사와 결부된 각종 이교적 행위들, 장식물들, 우상숭배들과 같은 오류들이었다. 후자의 이유는 미사를 희생제사로 간주함으

¹¹ Schmalkaldischen Artikel(1537), [選集] 8, p. 401-402.

¹² Institution IV, 18/1.

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유일회적인 죽음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그 값없는 사죄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오류들을 반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들이 지속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서적 진리는 파괴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미사를 비판했고, 개혁해나갔던 것이다.

2. 종교개혁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다.

흔히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원리중의 하나로서, “오직 성서로만(sola scriptura)”을 제시하고 있다. 즉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성경에 의해서였고, 그 진리가 왜곡되었을 때, 말씀과 복음과 그리고 거기에 입각한 참 교회의 회복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훗날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의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교황이 강권과 교활한 수단으로 모든 힘과 권위를 물려받아서 아무 황제나 임금이 그를 천대할 수 없게 된 후 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매우 천진난만하게 이 속에 들어갔으며, 20년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런 일(개혁)을 행하셨으며 참 근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엘풀트에서 젊은 서생으로 있을 때, 늘 솔坡의 유혹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서를 읽는데 꾸준히 전념했으며, 바로 성서본문 자체에서 교황권에 많은 과오가 있음을 곧 알았습니다… 후에 면죄부의 큰 남용을 보고 이것들을 반증하였고, 그들이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내가 매우 약하기는 했으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¹³

그러나 성경중심의 개혁이라는 성격은 단지 루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쪼빙글리나 부서, 칼빈 등 여러 종교개혁자들에게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들의 저술이나 활동은 모두 성경의 진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참된 교회를

¹³ Tischreden, TR 3, no. 3593, [選集] 12, p. 185.

세우고, 신자들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혀졌다. 즉 신자와 교회의 모든 것을 성서의 토대위에 세우고자 했으며, 또한 그것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가령 쪼방글리는 자신의 개혁을 밝히는 [67개조문]에서 그 원리를 “오직 성서로만” “오직 그리스도만 (solus christus)”이라고 명시했으며,¹⁴ 칼빈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의 척도나 판단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향해 나가야 하며, 거기에 자신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정신이 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또한 각종 오류속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를 고려한다면, 그런 욕망으로써 인간의 정신은 매 순간 이상한 종교들을 발명해내게끔 되어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 말씀속에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제시되고, 그분의 역사(役事)들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것들은 우리의 왜곡된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것, 즉 영원한 진리의 척도에 따라서 평가된다.”¹⁵

성서중심의 예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루터보다는 프랑스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루터와 달리,¹⁶ 그들은 종교개혁의 초기부터 예배의 개혁을 주창하며 나섰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성상이나 각종 미신적 요소들을 철폐했고, 미사를 버리고, 개신교방식의 예배를 수립, 거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황에 따라 비밀리에 거행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공개적으로 카톨릭교회를 접수하고, 개신교회와 예배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성경에 따라서, 특히, 각종 성상들이나, 축제일, 성유골 숭배, 미사와 사적 미사, 죽은 자들을

¹⁴ U. Gbler, op. cit., p. 80.

¹⁵ Institution I, 6/3.

¹⁶ 물론 루터의 진영 내부에서 칼슈타트 같은 일부 사람들은 성상, 그레고리안 성가 영창, 제복, 오르간사용 금지 등을 내세우며 과격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루터 자신은 그런 급진적인 개혁에 비판적이었다. 참고, 지원용, “성만찬에서 두가지를 받는데 관하여, 소개의 말” [選集] 7, p. 205.

위한 미사를 금지했다. 그리고 교회당을 제단중심에서 강단중심으로 재배치 했으며, 제단을 단순하고 소박한 성찬상으로 대치했다. 그리고 사제들의 제사복을 개혁했다.¹⁷

뿐만 아니라, 재세례파들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급진적 종교개혁(radical reformations)”들은 그보다 더 나가서, 유아세례 폐지, 재세례, 침례, 국교폐지, 병역폐지, 세금불납, 공동체생활, 일부다처허용, 신국도래를 위한 무장과 무장투쟁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하고, 다발적인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들 역시, 예배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중심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형식이나 규례를 벗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폭넓게 용인하며, 심지어는 공적 예배를 부정하는 등 매우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다. 특히 공적 예배를 부정했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은 “참된 교회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곧 순종하며, 고통받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성경읽기, 권면 그리고 가정의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갖는 주의 만찬 등을 위하여 모일 때 절정에 이르렀다.”¹⁸

그러나 종교개혁들이 각각 성경에 따라서 예배를 개혁해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상에서 보듯이, 매우 다른, 심지어는 상반되기까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서, 당시는 아직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정한 방법, 또는 성서학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가령, 성경안의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의 혼동, 자신들의 성향이나 필요에 맞는 부분들만 의존하는 경향, 자기의 견해를 증명하기 위한 성서인용, 즉 증빙전(text-proof)으로서의 성서사용, 텍스트의 역사적, 문화적 정황에 대한 몫이 이해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 예배형태들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동시에 수많은 분열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

¹⁷ 이 연구의 주 1 참고.

¹⁸ Maxwell,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p. 40-41. R. E. Webber, Worship, Old and New, 정장복 역, [예배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p. 92.

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와 예배를 개혁해 나가고자 했다. 그것은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원리(principe)였다. 즉 그들은 예배개혁의 원리를 성경에 두고, 그 말씀과 형식에 따라 자신들의 예배를 개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의연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우 다양한 예배들을 발전시켰으나, 그 근본이 되는 원리에서는 일치했다고 하겠다.

3. 종교개혁은 성례전들을 개혁했고, 말씀중심의 예배를 세웠다.

종교개혁이 카톨릭의 미사를 폐지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성례전을 개혁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미사 자체가 바로 성례전, 특히 성만찬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었다.¹⁹ 그래서 종교개혁은 미사가 아닌, 성만찬 예식을 세웠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음적인 예배를 수립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개혁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성경에 따른다’는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은 그것을 어떻게 개혁했을까?

먼저, 성례전의 숫자에 관계된 것을 본다. 종교개혁은 우선 성례전의 숫자를 줄였다. 그래서 과거 로마교회의 일곱 개의 성례전은 종교개혁 초기 세 개로 줄었다가, 곧 두 개(세례와 성만찬)로 정착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의 종교개혁 초기만 해도, 가령 1520년의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서 볼 때, 성례전은 세례, 성만찬, 그리고 참회의 성례(고해성사)²⁰인 세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

¹⁹ 미사(Mess, Missa)라는 용어는 라틴어 *mittere* (보내다, -o, -is, misi, missum)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은 “사제가 정해진 예전에 따라서 시행하는, 두 질료, 뼙과 포도주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회생제사”를 의미한다. Petit Robert,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1, art. “messe”.

²⁰ 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選集] 7, p. 121-. 여기서 루터는 참회의 성례의 성서적 근거로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마16:19, 18:18), 그리고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으며...” (요20:23) 등을 제시한다.

적인 형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례와 성만찬으로 정착되는데, 그것은 그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제정했거나 그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또 하나, 고해성사가 성례전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된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포도주나 물과 같은 물질적인 표시가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²¹ 쪼빙글리와 칼빈의 경우는 일곱성례에서 직접 두가지 성례로 축소시켰으며, 이유는 루터와 같았다.²²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가령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르틴 부서는 안수례를 성례전으로 간주했는데, 그는 그것을 견신례와 결혼, 그리고 목사 임직식에 거행했다. 또한 같은 시대에 일부에서는 세례례를 성례전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기도 했다.²³

또한 종교개혁이 성례전을 개혁했던 것 중 하나는 떡과 포도주의 분배방식이었다. 즉 로마교회가 신자들에게는 떡만 분여했던 것에 반해서,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성만찬시 떡과 포도주 두가지를 모두 다 분배했다. 물론 초기의 루터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얼마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 그래서 그 개혁을 말할 때, ‘전에는 떡만 분배하였으나, 점차 떡과 포도주 두가지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²⁴ 그러나 칼빈이나 쪼빙글리 등 여타의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두가지를 모두 나누는 방식으로 시행했다.²⁵

그러나 미사의 개혁에 있어서,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그 신학적 근거와 내용의 문제였다. 즉 미사-성만찬을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제정하고 권장하신 그 성만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루터는 말했다.

²¹ A. Gounelle, “Protestantisme et sacrements”, in *Evangile et Liberté*, Avril 1991, p. ii.

²² J. V. Pollet, op. cit., p. 87. 그리고 칼빈을 위해서는 *Institution IV*, 14 17, 그리고 J. Cadier, op. cit., p. 138 이하 참고.

²³ A. Gounelle, op. cit..

²⁴ Von beider Gestalt des Sacrement(1522), [選集] 7, p. 202-.

²⁵ J. V. Pollet, op. cit., p. 96. Cf. *Institution IV*, 17/47-50.

“사랑을 통한 일치속에 함께 묶여져야 하는, 용납되고 사랑받게 될 사람들을 그 자신의 힘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 전체를 폐기하셨다. 그리고 그는 분열과 분파를 위해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기로 하였고, 그 대신에 그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오직 한 법 혹은 한 질서만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끝 거룩한 미사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미사 이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위한 다른 어떠한 의적 질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²⁶

여기서 루터는 참된 미사(성만찬)는 바로 그리스도가 최초로 행하신 유월절 만찬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참되고 유일한 예배이고 성례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바로 그 이유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바로 그 성례를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한 법, 한 질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들의 미사가 그리스도의 첫째 미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심할 바 없이 그 미사들은 개선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미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같은 성대한 형식들은 위험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제도로부터 그리고 미사의 올바른 사용으로부터 그 침가된 형식 등에 의해서 그릇되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금하도록 해야 한다.”²⁷

“만약 우리가 미사를 올바로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감각을 통해 감지되는 모든 것들 - 의복, 종(bell), 찬송, 장식, 기도, 성체거양, 부복 및 기타 미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 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불잡고 철저히 숙고할 때까지 단념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의해 미사를 제정하셨고, 거행하셨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사 전체, 즉 그 본성, 역사, 유의 및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없이는 미사로부터 그 어느 것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²⁸

²⁶ Eyn Sermon von dem Newen Testament, das ist von der heyligen Mess (1520), [選集] 7, p. 90-91.

²⁷ Ibid., p. 91.

²⁸ Ibid., p. 92.

이같은 루터의 글에서 보듯이, 성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의적인 형식이나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단순하고 소박한 의식이며, 그리고 그 본질적인 요소를 살리고, 되새기는 일이었다. 특히 두 번째 인용문 후반부에서 보듯이, 루터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즉 그리스도교의 성례전은 침묵속에서 단지 무의미한 동작이나 행위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써 신자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축복과 위로를 받으며, 동시에 성례전에의 참여를 통해 그 은혜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였다. 그래서 루터는 성만찬에서의 말씀을 매우 강조했고, 그 결과 그 말씀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 혹은 “…살이라”는 성구의 단순한 낭송에서 더나가 그것에 대한 주석과 설명을 부가하는 식으로 발전되어 갔다.

특히 루터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죄사함과 구원의 약속에 초점이 있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거기서 평화를 찾으며,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의 인용문들이 그점을 알려준다.

“참으로 위대하고 영원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보화,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인 바 그 말씀은 다음과 같이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로 베푸는 새로운 영원한 언약의 잔이니라’ …”²⁹

“만약 여러분이 이 성례전과 언약을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며, 강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믿으며, 그리고 그 말씀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받을만하고 잘 준비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신앙과 신뢰는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야만 하며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확고부동한 사랑을 일깨워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으로 선한 생활로 인도되고 온 마음을 다해 죄에서 해방되고자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다…”³⁰

²⁹ Ibid., p. 95.

³⁰ Ibid., p. 98.

그 결과 투터의 종교개혁에 따른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성만찬을 기초로 하며, 그 성만찬에서 말씀이 강조되고 강화됨으로써 점차 성찬과 말씀이라는 두 개의 초점을 가진 개신교의 예배가 확립되어갔다고 보겠다.

칼빈에게 있어서, 성만찬과 말씀과의 관계문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칼빈은 성례전 자체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효력은 다툼아닌, 그리스도의 약속을 확증하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성례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요약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신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성례전으로써 우리를 확신하게 만든다. 셋째로, 그는 자신의 성령의 빛으로써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성례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열어주신다...”³¹

여기서 보듯이, 칼빈에게서는 성례전과 말씀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선 말씀에 우선권이 놓여진다. 그래서 성례전은 2차적으로,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한 보완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런식으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또한 일차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성만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만찬은 그것 자체로서 독립적인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더 나가서, 성만찬 자체의 성격에 비추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성만찬은 “사랑과 평화와 일치에로 끌어당기고, 불붙혀주는 가장 열렬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가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는” 더 나가서 우리의 형제들과도 하나가 되는 “사랑의 끈 (lien de charité)”이라고 보았다.³² 그런 관점에서 칼빈은 말한다.

³¹ Institution IV, 14/8.

³² Institution IV, 17/38.

“…성만찬의 참된 시행은 말씀가운데 있다. 우리가 만찬에서 얻는 유익은 모두 말씀이 거기서 동시에 현존하는 것을 요청한다. 만일 우리가 신앙을 굳게 해야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고백 가운데서 훈련받아야 한다면, 또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권면을 받아야 한다면, 말씀이 우선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들이 제공되며,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세우며, 그들의 이해력가운데 들어가며,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설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³³

그런 이유들로써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 역시, 예배에서 말씀(설교)이 성만찬보다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개신교의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종교개혁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현실적인 이유들을 수용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유습들을 용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것은 특히 루터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입당송에 관계된 루터의 입장을 본다.

“우리는 주일날들과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과 같은 그리스도의 축일들을 위한 입당송들을 인정하고 또 존속시킨다. 비록 우리는 입당송들이 예전부터 사용한 시편들을 더 좋아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분간 현재대로의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만일 어떤 사람이 사도들의 축일들과 동정녀 및 기타 성자들의 축일들에 대하여 입당송들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면 (만일 그것이 시편 또는 다른 구절들로부터 취해진 것인 한) 우리는 그것들을 정죄하지 않는다.”³⁴

³³ Institution IV, 17/39.

³⁴ Formula Missae et Comunionis pro Ecclesia Vuittembergensi(1523), [選集] 8, p. 443.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루터의 현실적인, 혹은 미온적이라고까지 보이는 태도가 발견된다.

“… 외적인 침가나 차이점은 그들의 비 유사성에 의해 분파들과 알력들을 낳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인해서 미사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나는 그같은 침가들을 대치시키거나 버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전히 그같은 성대한 형식들은 위험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제도로부터 그리고 미사의 올바른 사용으로부터 그 침가된 형식 등에 대해서 그릇되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금하도록 해야 한다.”³⁵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매우 단호하고, 강경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파문과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교황권에 도전했고, 수차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또 위험한 여행을 감행하기도 했다.³⁶ 그렇게 결단력있던 종교개혁자가 많은 점에 있어서 양보하고, 현실과 타협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가 예배에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맡겨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미사의 제복에 관해서 그가 취했던 관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복(祭服)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통해 허식과 허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복을 착용하였다고 해서 축성받을 때 더 잘 축성되는 것도, 제복을 걸치지 않았다고 해서 덜 축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³⁷

루터가 현실적인 태도를 취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믿

³⁵ Eyn Sermon von dem Newen Testament, das ist von der heyligen Mess (1520), [選集] 7, p. 91.

³⁶ 루터의 생애와 종교개혁에 관해서는 G. Casalis, Luther et l'Eglise confessante, 이오갑 역 [루터와 고백교회] 서울, 솔로몬, 1995 등 참고.

³⁷ Formula Missae et Comunionis pro Ecclesia Vuittembergensi(1523), [選集] 8, p. 451.

음의 정도를 고려했다는데 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개혁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적 미사에 대한 루터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교회내에서 어떠한 사적인 미사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필요한 이유로, 혹은 신앙의 연약함으로 일시 양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더라도 말이다.”³⁸

한편 칼빈 역시 개혁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전이나 장벽에 부딪혀서 자신의 견해를 유보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제네바교회에서의 성만찬 시행의 횟수문제였다. 종교개혁 속에서 성만찬을 언제, 얼마나 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다. 참고로, 루터의 경우, 성만찬은 예배시 매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에게서 성만찬이 생략된 예배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전통은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그 후에도) 루터교회에서 비교적 충실히 지켜졌다. 그러나 콤빙글리와 스트라스부르의 부서는 성만찬을 연 4회,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수호성인 축제일에 시행하기를 원했다.³⁹ 그러나 칼빈의 사상적 영향권에 있는 개혁교회들에게 있어서는 경 우가 달랐다. 원래 칼빈은 성만찬을 자주하되, 매주 한 번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살과 피와, 그의 죽음의, 그의 생명의, 그의 영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화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거행하라고 예수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사랑으로 빈번하게 거행하라고 주어진 것이다.”⁴⁰

³⁸ Ibid., p. 452.

³⁹ J. V. Pollet, op. cit., p. 265.

⁴⁰ Articles de 1537, J. Cadier, op. cit., p. 95 채인용.

칼빈은 그렇게 말하면서, 성찬식이 매 주일 시행되기를 원했던 것이다.⁴¹⁾ 그러나 쪼빙글리와 기타 스위스교회의 영향을 받은 시의회는 그같은 칼빈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쪼빙글리식을 따르려는 시의회의 주장 을 꺽지 못했던 칼빈은 결국 제네바교회에서 성찬식을 년 4회, 즉 세 번의 대 축제일과 9월에 한차례 시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말았던 것이다.⁴²⁾ 그러나 칼빈은 그 뒤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찬식을 자주, 그리고 최소한 매주 거행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555년 베른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썼다.

“비록 새로운 문제는 아니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년에 네 차례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세 차례 기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보다 자주 성찬을 기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교회는 훨씬 더 자주 성찬을 기념하였으며, 이러한 관습은 사탄이 저 가증스러운 미사를 수립하기까지 오랜 기간 초기 교회에서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도들의 표본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결함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⁴³⁾

그같은 입장은 칼빈의 생애 말년까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559년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 주님의 만찬이 최소한 매주 1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베풀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속들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강전해지고 영적으로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두에게 권고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지적되고 고쳐 져야 할 것이다.”⁴⁴⁾

⁴¹ J. Cadier, *ibid.*

⁴² *Ibid.*. Cf. R. Weber, *op. cit.*, p. 94.

⁴³ R. Weber, *op. cit.*, p. 94 재인용.

⁴⁴ *Institution IV*, 17/46.

어쨌든 루터나 칼빈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신하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현실의 요구들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문제들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바로 잡히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고착되어 버리고 만 것들도 있다고 하겠다. 이 후자의 경우는 우리 현대 교회가 개신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5.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의 예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되었다.

종교개혁이 성서에 따라서 성례전과 예배를 개혁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예배를 가지게 되었다. 즉 각 종교개혁의 진영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식의 예배를 도렸으며, 그것이 각 교회의 고유한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개혁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성경해석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나 그 범위에 따라서 또한 예배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형성된 종교개혁의 예배들은 크게 다음의 네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루터교회의 예배이다. 루터교회는 현실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고려했을 뿐더러, 또한 신학적으로도 이전 로마교회의 미사의식을 크게 배제하지는 않았다. 루터와 그 교회가 비판했던 것은 미사의 그릇된 신학과 시행이었지 그 형식이나 순서같은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교회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예전과 가장 흡사한 예배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아우 그스부르그 신앙고백의 전술이 그점을 잘 밀해주고 있다.

“우리 교회들은 그릇되게도 미사를 폐지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중에는 미사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최고의 경의심속에서 드려

지고 있다. 거의 모든 전통적 의식을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다.”⁴⁵

그 루터교회와 함께, 종교개혁의 교회들 중에서는 영국국교회가 로마교회의 예전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다. 영국교회의 개혁은 다소 독특한 원인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그 신학의 문제도 많은 논란과 전환을 거치면서, 매우 뒤늦게야 비로소 영국적인 교회, 즉 “Anglicanism”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교회는 예전 상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이 로마교회 예배와의 연속성을 유지했다.⁴⁷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온건한 형태의 예배개혁의 예로서, 루터교회의 예전의 구조와 내용만을 본다. 특히 루터가 독일교회를 위해 제정했던 미사와 예배의 모범으로서, 평신도를 위한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예배시작 - 찬가 또는 독일 시편을 제 1성(first tone)으로 찬양.

2. 찬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같은 음조로 3회

3. 사제가 단조(短調)로 다음의 기도문 낭독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보호자시여!

당신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행할 수 없고,

당신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감에 의하여

우리가 올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에 의하여 올바른 것을 행하게 하소서.

⁴⁵ Augsburg Confession, 24. R. E. Webber, op. cit., p. 91 재인용.

⁴⁶ C. W. Dugmore, The Mass and The English Reformer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8, p. 246. 여기서 저자는 엘리자베스여왕 통치 후반기에, 리처드 후커(R. Hooker)가 Of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를 저술함으로써(제 5권이 1597년에 출판됨) 비로소 진정한 영국교회의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⁴⁷ F. M. Segler, Christia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정진황 역 [예배학 원론] 서울, 요단출판사, 1979, p. 57. 그리고 R. Weber, op. cit., p. 9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4. 사제가 회중을 향해 서서 제 8성으로 서신 낭독 (짧은 기도시에는 제단을 향해서 선다)
5. 독일 찬가 “이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합시다” 또는 다른 독일 찬가를 전 성가대와 함께 부름
6. 사제가 제 5성으로 회중을 향해 서서 복음서 낭독
7. 회중이 독일어로 사도신조를 노래
8. 설교 - 주일이나 축일에 해당되는 복음서 낭독에 준해서 (교회력에 따른 설교집 해당설교 낭독을 권장 - 설교준비가 힘든 설교자들을 위해, 또는 이단이나 열광주의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9. 성찬식을 위한 주기도문 석의와 경계
10. 떡의 축성
11. 떡의 분배 - 쌍투스나 찬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또는 요한 후스의 찬가 “우리의 하나님아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12. 잔의 축복과 집례⁴⁸ - 위의 찬가들의 나머지 부분을 노래, 혹은 독일어로 된 “하나님의 어린양”을 찬양
(성례는 점잖고 질서있게 배풀어져야 한다. 남녀가 떨어져서 위치해야 하고, 남자들이 받은 후 여자들이 받는다. 성체의 거양은 보존된다.)
13. 쌍투스
14. 짧은 기도와 축복기도⁴⁹

둘째로, 쪼빙글리의 찌리히교회와 같이 급격한 방식으로 개혁된 예배를 지

⁴⁸ 루터는 잔의 ‘집례’라고 표현함으로써, 평신도들에게 잔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뿐, 포도주를 평신도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은 분명하다. Formula missae et Communionis pro Vuittembergensi, [選集] 8, p. 454.

⁴⁹ Deutsche Messe und ordnung Gottis diensts (1526), [選集] 8, p. 473-478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적할 수 있다. 콤빙글리는 미사의 예식들을 이교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배척했고, 예배당의 성상들과 각종 장식들,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제거했다. 더 나가서, 악기나 음악까지도 배제하는 등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 훨씬 급진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성만찬 자체도 그 의미를 축소하여, 연 4회만 시행했고, 오직 말씀중심의 예배를 강화했다.⁵⁰ 그와같이 개혁된 콤빙글리의 예배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J. V. 폴레(Polle)는 1536년의 *Ordnung*을 토대로 조사하고, 종합하여 그의 예배를 대체로 완전하게 서술해주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말씀의 예배

중재의 기도(Frbittegebet) - 그날의 설교와 관계된다.

신양고백(Offene Schuld) - 중재의 기도에 뒤이어 한다.

(아마도) 사죄의 선언 - 신양고백의 뒤를 이어 발표된다.

그리고 잘 알 수 없는 순서(들).

콤빙글리의 설교

만찬의 예배(Abendmahlsgottesdienst)⁵¹

1부 - Pronaus (의미 불분명)

2부 - 로마 예전의 미사 도입부에 해당됨.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만찬을 향함.

⁵⁰ R. Weber, *Ibid.*, p. 92. F. M. Segler, *Ibid.*, p. 58. S. Widmer, Herausgegeben vom Kirchenrat der evangelische-reformierten Landeskirche des Kanton Z rich, 연구소 역 [1484 개혁교회의 창시자 콤빙글리 1984]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3, p. 34-38 등, 콤빙글리의 예배음악에 관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가령 마르쿠스 젠니 같은 학자는 콤빙글리가 예배음악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는 사실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M. Jenny, *Zwinglis Stellung zur Musik im Gottesdienst*, Zurich, 1966, Luther Zwingli Calvin in ihren, Zurich, 1983, 특히 Zwinglis Stellung p. 41. J. V. Pollet, *op. cit.*, p. 266 재인용.

⁵¹ 이 순서는 *Aktion oder Brauch des Nachtmahls* 과 1535년의 *Ordonnances*에 따른 것이다.

- 봉헌 - 전통적인 방식임.
 글로리아(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
 고전 11 20-29 과 요 6, 47-63에서 이끌어낸 두 개의 가르침.(성찬
 식의 제정에 관한 말씀들임)
 신앙고백 - 사도신조
 3부 - 고유한 의미에서 만찬임
 참여자들에 대한 권고
 주기도문 암송
 제정의 말씀 - 가장 강조됨.
 분배
 주기도문⁵²

셋째로, 칼빈이 주도한 제네바 중심의 불어권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예배를 들 수 있다. 칼빈은 루터와 쪼빙글리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는 예배와 성례전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유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배의 시행에 있어서는 부서의 스트라스부르교회의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Ancien church)를 모범으로 삼았는데,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망명하는 동안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거기에 가깝다고 보았던 것이다.⁵³ 그래서 칼빈은 망명에서 돌아오자 마자 제네바교회의 예배를 스트라스부르교회를 본받아 개혁하게 된다. 거기에 따르면,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고, 시편으로 찬송해야 하며, 악기의 사용은 배제되었고, 제복대신 단순한 검은 예복으로 대신하였으며, 제단은 성찬상(床)으로 대치되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강화되어 약 한시간 정도의 설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또한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⁵⁴ 그리고 그 예배의 구체적인 순서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⁵² J. V. Pollet, op. cit., p. 264.

⁵³ R. Weber, op. cit., p. 93-94.

⁵⁴ F. M. Segler, op. cit., p. 59-60, 116, R. Weber, ibid., 92-94 등.

말씀의 예배식

1. 성서의 글 : 시편 124:8
2. 죄의 고백
3. 용서를 바라는 기도
4. 운율(韻律)의 시편
5. 계시를 위한 특별기도
6. 성구의 독송(讀誦)
7. 설교

다락방의 예배식

1. 헌금의 수집
2. 대도(代禱)
3. 길게 풀이된 주님의 기도
4. 성찬 음식준비의 시간
5. 사도신경의 노래
6. 교훈의 말씀
7. 권면
8. 헌신의 기도
9. 성찬 떡의 분할
10. 분배
11. 성찬, 그동안에 시편이나 성서를 읽는다.
12. 성찬 후의 특별기도
13. 아론의 축복⁵⁵

그리고 끝으로, 재세례파등 급진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예배를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개혁이 국가정부와 결합한 형태여서 참다운 성경, 특히 신약의 교회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종교

⁵⁵ 이상 F. M. Segler, ibid., p. 60 재인용.

개혁보다 더 앞서 나가, 여러 가지 예배의 관습들과 형식, 요소들을 철폐했다. 여기서는 특히 재세례파들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본다.

재세례파는 원래 꺾리히, 쪼빙글리의 개혁권내에서 발생했던 운동이었으나, 쪼빙글리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더 급격한 개혁을 요구하며 꺾리히 교회와 부딪쳤다. 그들은 예배나 생활에 있어서 신약에 나타난 원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범으로 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 결과 재세례파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유아세례를 철폐했으며, 재침례를 - 초기에는 꼭 침례만은 아니었다 - 베풀었으며, 회중의 예배참여가 폭넓게 용인되었다.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이 없었으며, 회중의 찬송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자신들이 박해당한 내용을 담은 순교찬송이었다. 그들은 예배에서 기존의 신조가 아닌 자신들의 신앙내용을 저술, 채택, 고백했는데, 그 최초의 것이 1527년 스위스형제단의 슈라이데임고백(Schleitheim Confession)이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만을 의식으로 제정해서 시행했다.⁵⁶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미사를 폐지하고,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복음과 그 정신에 따라서 예배를 개혁했다.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그렇게 개혁된 예배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믿고,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발전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런 종교개혁 예배의 특성을 다음의 네가지 점으로 정리해본다.

첫째, 종교개혁은 공통적으로 예배를 죄의 용서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로 간주했다. 로마교회는 미사를 회생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⁵⁶ Ibid., p. 61-64 등 참고.

날마다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으며, 따라서 신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거기에 참례해야만 했다. 그것은 공적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약화시켰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로마교회를 비판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고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의 예배를 거행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였고, 또한 자발적이고 신앙적인 감사였던 것이다.

둘째, 종교개혁은 예배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고자 했다. 로마교회는 미사를 통해 성직자들과 교회의 권력과 부를 강화했다. 즉 그들은 사제가 축성함으로써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며, 그것을 받음으로써 죄가 사해진다고 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성직의 권한을 극대화했다. 사제가 없는 미사는 불가능했으며, 교회가 곧 미사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제없는 교회 역시 불가능했다. 더욱이 그들은 사제 미사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미사를 상업화하고, 축제의 수단으로까지 삼았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같은 점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참된 예배의 신학과 형식을 찾았으며, 거기에 따라서 각기 예배를 개혁해 나갔다.

셋째, 종교개혁의 예배는 말씀을 강조했으며, 그 결과 말씀중심의 개신교 예배가 형성되었다. 로마교회의 미사는 사제의 축성, 성체거양, 분여 등 일련의 동작들이었다. 그것은 라틴어 축성이라는 주술적인 언어와 시각과 촉각, 미각 등을 통한 감각에 의존했으며, 거기에 죄의 용서라는 암시가 덧붙혀졌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시적인 말씀에 의한 이해와 판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마술과 미신, 우상숭배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미사와 그 관행에 이교적인 요소들, 풍습들이 매우 많이 수용되었으며, 그것은 종교 개혁 당시 모두 철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폐해들을 인식했던 종교개혁은 예배에서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제거했으며, 말씀과 성만찬 중

심의 성서적인 예배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들은 특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확신시키며, 그들을 신앙으로 초청하고, 복음의 이해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강조했으며, 거기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예배는 점차 말씀중심의 예배로 발전되었다.

네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예배개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으며, 발전되었다. 주지하듯이 종교개혁은 그 출발부터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신학과 경향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개신교회들은 그 성격상 다양하고, 개성적인 형태로 성립, 발전될 소지가 매우 커졌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 예배가 다양하게 성립되었던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강조점, 주로 의존하는 본문이나 해석 등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 세속정부의 요구나 교인들의 신앙이나 의식수준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았고, 또 그것을 반영한 정도가 달랐다는 점 등이었다.

종교개혁은 참된 예배의 초석을 놓았고, 또 예배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원리를 밝혀주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종교개혁에 많은 빛을 지고 있고, 또한 그 정신과 형식을 잘 계승해나가야 할 과제를 갖는다. 그러나 현대의 개신 교회가 종교개혁이 세워놓은 예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거나 답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예배를 개혁했다고 할지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고, 또한 그 이후의 계승과정에서 잘못이 강화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말씀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 예배에서 성만찬없이 말씀만으로써 예배드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만찬이 균형있게 강조되고 시행되는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예배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세웠던 예배의 원리이다. 즉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신과 형식으로써 예배드린다는, 그리고 언제나 그 성경의 뜻에 더 잘 맞게, 더

바르게 개혁해나간다는 원리이다. 종교개혁의 교회는 “언제나 개혁해 나가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enda)”이다. 그러므로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의 개혁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나 새롭게 일깨워주고, 계시해주는 성경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스스로를 개혁해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다양성과 전통속에서도 모든 개신교회들이 영원한 말씀의 빛에서 일치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대한다.